

“호남학 미래, 생활 문화사 중심으로 전환해야”



남도에는 영산강을 배경으로 다양한 누적이 자리한다. 사진은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풍영정. <인춘교 사진작가 제공>

오늘 ‘호남학의 미래를 탐색하다’ 정책간담회 발표문서 제기 김덕진 교수 “근현대사로 확장”...민속·종가 등 전문가 참여

호남학의 미래와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생활 문화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의 고분사, 양반사, 정치사, 운동사 중심에서 탈피해 생활과 밀착된 부분으로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견해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천득염),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원장 이성원)이 14일 전남대 정보마루 우미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하는 정책간담회 ‘호남학의 미래를 탐색하다’를 앞두고 김덕진 광주교대 교수가 배포한 발표문서에서 제기됐다.

김덕진 교수는 ‘전라도 역사의 특징과 그에 대한 과제’라는 주제 발표문서에서 “기존의 선사, 전통, 근대시대 중심을 벗어나 근대·현대사 중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간담회는 호남의 정체성과 가치를 파악하고 미래 호남학의 외연 확장에 대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토론회는 천득염 원장의 개회사, 이진식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의 축사로 시작되며 좌장은 이성원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장이 맡는다. 패널로는 이경엽 목포대 교수(민속), 이계표 전남대 문화재위원(불교), 서해숙 남도민속학회(종가), 이선옥 의재미술관장(예술), 조태성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교수(누정) 등이 참석한다.

김덕진 교수는 학문 후속세대 양성이라는 전제하에 신진 연구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적 배려를 주장했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대학 재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다.

고문 국역 번역 위주의 연구 방향도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할 필요성도 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연구가 미진하거나 왜곡된 주제에 대한 심화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며 “교육사, 축사사, 유등사, 교통사 등 지역에 대한 특수·분류사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아울러 부분별 산재돼 있는 주제를 종합해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예인의 계보나 영암 구림 마을, 나주 임씨 마을 등과 같은 주제 등을 한곳에 묶어 학술서 총서나 고급 대중서로 발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자료를 발굴하고 자료집을 간행하는 일뿐 아니라 멸실 위기 자료에 대한 기증·기탁의 문호를 열어 DB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한편으로 풍부한 원천에 비해 성과가 미흡한 구술사, 민중사, 자료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지정 토론에 나서는 패널들은 토론문을 토대로 호남학 미래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경엽 교수는 민속과 관련된 생활문화 연구의 중요성과 의미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각종 계문서, 부의록, 일기, 편지 등을 토대로 지역문화의 개성과 다양성 및 미래까지 탐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동안 소홀히 다뤘던 민속문화재 영역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계표 위원은 체계적인 호남불교사의 정리가 절실하다는 주장을 폈다. 호남불교가 한국불교를 견인해 왔기 때문에 호남불교문화를 정리해야 한국불교문화사를 제대로 서술할 수 있다는 논리다. 더불어 그는 “토착적 근대성을 찾기 위한 개벽종교(동학, 천도교, 증산교, 원불교)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자료수집과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가 분야에 대한 제언도 있다. 서해숙 남도민속학회장은 지난 3년간 전남 일대 종가 조사를 진

행한 결과 총 104개의 현황조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가 소장 기록 유산을 목록화하고 이를 토대로 ‘종가유물전시관’ 건립 등 기록유산과 유물보존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스토리텔링을 매개로 가치가 높은 종가유물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선옥 의재미술관 관장은 호남학을 위한 호남서화 연구를 제기했다. 자료의 DB화, 학술적 연구 성과를 발간, 디지털 미술관 운영 등이 구체적 사례다. 이 관장은 “호남 서화 자료를 총체적으로 조사, 수집, 정리, 분석하고 지식 콘텐츠로 가공 집적해 활용 가치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며 “붓글씨나 목화를 배울 수 있는 전통서화학교 같은 기관의 설립도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조태성 교수는 누정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을 밟아나가자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누정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호남진흥원의 중장기 연구 아젠다의 하나로 설정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등재 과정에서의 소유 관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 등도 설립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영광 전주이씨 양도공파 양도공종가

“언젠가 피어날 미래를 꿈꾸며”

고려고 교사 이삼남 시인, ‘너와 떡볶이’ 출간

오늘의 고등학교 교실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숨 돌릴 틈이 없다. 특히 고3이라는 시간은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들고 여유가 없는 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럴 때가 ‘꽃봉우리 속에 담긴 꽃의 시간처럼 언젠가는 활짝 피어날 미래를 꿈꾸는 날’이라고 말하는 시인이 있다. 또한 그 시인은 “모든 이야기가 제 나름의 빛깔이 되어 청소년들의 시간을 아름답게 물들이리라”고 믿는다.

23년의 교직생활 가운데 10년을 고3 담임으로 살았던 이삼남 시인. 현재 고려고 교사인 그는 최근 시집 ‘너와 떡볶이’ (창비)를 펴냈다.

2021 우수출판콘텐츠에 선정된 시집은 교실에서 길어 올린 희망과 위로의 시를 담고 있다. 이번 시집은 “청소년들의 불안정한 일상과 팬데믹 시대의 우울한 학교 현실을 진솔한 언어와 섬세한 필치로 그려낸” 작품집이다. 하루의 대부분을 학생들과 보내는 시인에게 학교는 “아이들의 여물지 않은 꿈이 자라는, 꽃망울 속에 담긴 꽃의 시간”으로 상징된다.

작품집에는 모두 72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작품들은 특히 입시 경쟁에 시달리는 고3 수험생에게 위로를 준다.

“꽃망울이다/ 청춘의/ 닫히지 않는 성장판이다 // 꽃의 속삭임/ 움츠린 시간처럼/ 고요히/ 제각각/ 자라나고 있다”

위 시 ‘교실’은 아이들이 자라는 교실의 풍경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

이다. 비록 입시에 찌들고 마구껏 뛰어놀 수 없는 시간이지만 그 속에서도 ‘성장판’은 닫히지 않고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간결한 시어로 풀어냈다.

‘시간표’, ‘학교 생활 기록부’, ‘온라인 클래스 6’, ‘울컥 다가오는 풍경’과 같은 작품에는 입시 지옥에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일상을 바라보는 애절한 시선이 투영돼 있다.

‘나’라는 시는 어른들이 한문 곱씹어봐야 하는 작품이다. “수시와 정시 사이/ 내신과 수능 사이/ 도전과 적정 사이/ 표준 점수와 백분위 사이/ 선택과 갈등의 기로에서/ 나는 우선순위가 아니다”는 표현은 아이들의 미래는 없고 오로지 부모와 학교가 꿈꾸는 미래만 있다는 현실을 아프게 짚어낸다.

그럼에도 시인은 아이들은 자란다는 사실을 노래한다. 입시라는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은 있지만 서로에게 마음을 주며 성장해간다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에게 격한 하이파이브가 필요하다”고 마지막이 속삭인다.

발문을 쓴 박종호 시인은 “세상의 다양한 풍경 속에 스스로 또 하나의 풍경이 되어 따뜻한 세상을 그려 내는 시인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한다.

한편 해남 출신 이삼남 시인은 1999년 ‘창조문학’에 시를 발표하며 등단했으며 시집 ‘빛을 머금은 잎사귀를 위하여’, ‘침묵의 말’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아마추어 성악 콩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15일부터 접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은 올해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8년째를 기념하는 행사로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아마추어 성악 콩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사업은 꾸준히 자기계발에 매진한 시민들에게 자기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3국의 아마추어 성악인들의 교류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우호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가 색다른 것은 3국 문화도시의 아마추어 성악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광주에선 (9월 7일 현장오디션)에서 3명을 선발하고, 이후 한·중·일 3국에서 9명이 참여하는 본선(10월 22일 온라인비대면)을 개최하며 입상자는 내년 한·중·일 문화도시 교류행사에 출연하게 된다. 입상자 전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수여

된다.

참가자격은 광주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의 아마추어 성악인으로, 접수기간은 오는 15일부터 8월13일까지다. 참가방법은 지원포럼 홈페이지(<http://accf.co.kr/>)에 접속해 소정 양식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사업은 2012년 5월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에서 제안된 3국 문화교류 프로젝트로 3국의 우호 증진과 상호 문화 이해에서 출발했다. 2014년 광주, 위안저우, 요코하마가 1호 도시로 선정해 이래 매년 나라별 1개 도시를 선정하여 시민들의 교류 촉진을 위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포럼 담당자에게 문의 062-611-2427. /박성천 기자 skypark@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나 실패할 것이나.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나 안 들 것이나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나 죽게 될 것이나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나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약속하기에 비해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그고 앉아 지나온 밤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 |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흥지사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